

이름에서 따온 것일세. 여기서 자네와 3리외 정도 떨어진
 곳으로 보이는 저 길쭉한 곳의 끄트머리는 바다에서 들이
 치는 파도로 반쯤 덮여 있는데, 거기가 생제랑 호가 태풍이
 들이닥치기 전날 항구로 들어오려고 우회하려다 결국 넘지
 못했던 곳으로, ‘불행의 곳’이라 불린다네. 그리고 이 계곡의
 끝자락, 여기 우리 앞에 보이는 ‘무덤 만(灣)’은 비르지니가
 모래 속에 묻혀 발견되었던 곳인데, 그 모습은 마치 바다가
 그녀의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주고자 했다는 듯싶기도, 또
 그녀가 자신의 순결로 영광스레 드높인 바로 이 바닷가를
 무덤 삼아 그 정절을 기리는 장례를 치러주고자 했다는 듯
 싶기도 했어. 지극히 다정한 사랑으로 연을 맺은 청춘이여!
 가련한 어머니들이여! 소중한 가족이여! 자네들에게 그늘이
 되어 주던 이 숲과, 자네들을 위해 흐르던 이 샘물과, 자네
 들이 다 같이 쉬어가던 이 언덕은 아직도 자네들의 죽음을
 슬퍼한다네. 자네들 이후로는 누구 하나 이 황량한 땅을
 일구고, 이 비루한 오두막을 일으켜 세울 엄두조차 내지
 못했어. 자네들의 염소는 야생으로 돌아갔고, 과수원은 망
 가졌네. 새들은 달아나, 이제 이 암벽 분지 위로는 높이 원을
 그리며 날아다니는 새매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
 다네. 나는, 더는 자네들을 볼 수 없는 나는, 그 뒤로 친구
 없는 친구나 마찬가지로, 자식 잃은 아버지나 마찬가지니,
 나 혼자 남아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린 게야.

이런 말을 하면서 그 착한 노인은 눈물을 쏟으며 떠나